



공정정보도

2011-1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노사, 반년 여 만에 편집위원회 재개

지난해 9월 중단됐던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가 재개됐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7층 회의실에서 제3기 1차 편집위를 열어 공정보도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노측에서 고흥규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류지복 공보위 부간사, 현윤경 공보위 총무, 김성진 기협 지회장,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이, 사측에서는 김성수 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김대영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편집위는 작년 9월 공정보도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은 노조의 참석 거부로 중단된 뒤 6개월 만에 열린 것이어서 '정상화'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했다.

노사 편집위원들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대통령의 조찬기도회 사진 지연발행 경위, 이명박 정부 3년 특집기사의 균형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논의에 주력했다.

또 연합뉴스 사회부가 전반적인 기사 흐름을 주도하긴 했지만, '상하이 스캔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종합기사가 동아일보 보도 직후 출고된 경위에 대한 문답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 이기창 사회부장은 회의에 참석해 상하이 스캔들 기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차기 회의부터 채삼석 기사심의실장이 옮겨버 자적으로 참석토록 해달라는 기사심의실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사는 작년 11월 편집국장 책임제 강화, 공정보도 평가기구 설치, 편집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타결하고 편집위를 재가동키로 했으나 편집위 구성원 변경 등으로 재개를 늦춰왔다.

<3월31일 편집위원회 요약>

3월31일 열린 제3기 1차 편집위는 ▲ 무릎 꿇은 대통령 조찬기도회 사진의 지연 발행 ▲ 이명박정부 3주년 특집기사 공정성 문제 ▲ 상하이 스캔들 특종 기사가 동아일보에 보도된 뒤 송고된 경위 등을 중점 논의했다.

1. 대통령 조찬기도회 사진

■ 노측 =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 사진은 당일 오전 취재해놓고도 문화일

보에 실리고 난 뒤에야 송고됐다.

해당 부서는 불교계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화합을 도모하는 게 언론의 사명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발행을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작년에 대통령 VIP 메모 사진이 누락된 사례와 맥락이 유사하다. 팩트 중심으로 생각하고 통신본연의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다. 불교계와 갈등이 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이 사진이 더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해명의 근거로 내세운 사항들은 좀 오버라고 본다. 한달에 발행되는 연합 기사 수 만건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연합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기사 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의 눈도 생각해야 한다.

■ 사측 = 당시 참석자들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불교계의 오해, 대통령의 종교 편향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인데 석간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 들어온 데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적극적 갈등 유발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나 여권을 봐주는 차원은 아니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5.18 상식을 밝히는 사진의 경우도 논란이 있었지만 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다. 이번엔 결과적으로 문화일보가 사진을 먼저 실었고, 연합이 나중에 발행해 우리가 늦은 셈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어떤 기사를 꼭 신문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문에서 썼다고, 방송에서 첫 꼭지로 보도했다고 우리 기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단으로 지적했으면 좋겠다.

2. 이명박정부 3주년 특집

■ 노측 = 이명박정부 3년을 돌아보는 총괄 시리즈가 2월에 나갔는데, 아이템 선정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 다. 기사 하나 하나의 내용을 뜯어보면 균형을 갖추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아이템 선정에서 시민, 국민의 시각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정치부에서 취임 3년 슬러그를 달고 총 6건의 기사가 나갔는데, 어록과 일지를 빼면 기사는 4건이다. 그 가운데 한 꼭지만 정부를 평가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 꼭지는 청

와대의 다짐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자세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공과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비중으로 실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른 언론에서도 양쪽을 고루 다루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진보신문뿐 아니라 보수 신문들도 다른 인사문제, 소통부족 문제를 연합은 언급하지 않았다. 슬러그만 보면 정권 홍보성 기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 사측 = 원안은 특집기사를 더 많이 쓰는 것이었는데 원안보다 꼭지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 번에 기사가 너무 많았다는 느낌도 있었고, 내용을 꼭 찬양 일색으로 쓰려 하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기술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당.정.청 의사결정 시스템 문제없나' 이렇게 달 수도 있었는데, 개헌.경제.대북 이런 식으로 현안 중심으로 달아서 비판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실 켈린더 기사의 경우 70년대, 80년대부터 해오던 것을 관성적으로 이어가는 측면이 있다. 기사 계획이 현재의 독자 시각이나 정.환경 변화에 맞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상하이 스캔들

■ 노측 = 사회부가 1보 기사를 며칠 전 일찌감치 송고해놓고도 심층취재 기사를 송고한 시점을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동아일보의 종합 기사와 같은 날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 사측 = 대특종에 약간의 허점이 있었다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다. 법조팀에서 제보를 받고 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등이 제보자에 대해 취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보자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했다. 예상 외로 총리실에서 새어나가 허를 찔렀다. 완벽을 기하다 보니 빛이 바랜 안타까운 기사다. 다각적, 종합적으로 기사를 주도했다고 자부한다.

노조가 궁금해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가 편집위원회 안건에 올릴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과거 이명박 선거캠프에 있었고,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궁금증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의 눈치를 봐 기사가 늦게 나간 것은 전혀 아니다.

2월 참글상에 고웅석조합원 '무슬림형제단' 인터뷰

2월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에 고웅석 조합원(카이로특파원)의 '무슬림형제단 2인자 알-바유미 부의장 인터뷰'가 뽑혔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후보작 3건을 놓고 투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직접 회의에 참석한 10명과, 앞서 이메일로 의견을 낸 6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다.

고웅석 조합원의 기사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접촉하기 어려운 이집트의 재야 정치지도자를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서방언론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시각에서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해당 기사가 기사 가치는 뛰어 나지만 참글상의 3대 취지(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 소외계층 보호, 사회갈등 해소)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론도 나와 공보위원 간 수상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에 의해 반정부단체로 규정된 무슬림형제단 인사를 인터뷰 보도하는 외국 언론사 기자는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무릅쓴 '기자정신'을 다수 위원들은 높이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 엄격하고 신중한 참글상 선정을 통해 상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 결과 추천된 참글상 후보작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보위원이 되도록 직접 회의에 참석, 추천 발언을 하고 공보위원의 재적 과반수의 온-오프라인 참석에 참석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수상작으로 선정키로 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기사의 상경(대상·우수상)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공보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되 미결시엔 참석자의 표결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